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34호 / 5월 9일

중국 보험산업, 제도적 개선책 마련 시급

1. 개요

-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의 충격이 가장 큰 산업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중국 보험산업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.
- 국무원발전연구중심(DRC)의 ‘금융개혁과 금융안전’ 연구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외국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험산업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, 중국 정부에 ▲관련법규 정비, ▲보험감독위의 기능 강화, ▲투자상품과 보험대리인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건의함.

2. 중국 보험산업의 취약점

- WTO 개방프로그램에 따라 중국은 향후 2~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외국 보험사와 전면적인 경쟁이 불가피함.
- 외국 보험사는 향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세한 자금력과 영업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 보험사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됨.

- 보험산업은 은행이나 증권업과는 달리 전국적인 지점망의 형성보다는 상품의 특성과 보험모집인의 능력에 좌우되는 경향이 큰 바 외국 보험사가 자사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경우 그 타격이 매우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.
 - o 실례로 미국 보험사들은 일본시장에 진출한지 3년 만에 ‘암보험’ 시장의 90%를 점유한 사례가 있음.
- 중국 보험사들은 증권,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 은행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수년간의 금리인하로 수익률이 매우 저조함.
- 1995년부터 시행된 <보험법>의 영향으로 투자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, 1996년이래 지금까지 총 7차례나 금리가 인하되어 보험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였음.
 - o 지금까지 금리인하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실액이 전체 자산의 15%인 500억 원에 달함.

3. 보험산업의 제도적 개선책

- 보험산업의 제반 법규를 재정비하고, 보험감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.
- 법규측면에서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,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조례, 보험위법처벌조례, 재보험관리규정, 수출신용보험조례, 보험자금운영관리조례 등을 재정비해야 함.
 - 보험업무와 상품별로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하고, 양로보험 상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함.
 - 대리인협회, 중개인협회, 감정인협회, 보험계리사협회, 재산보험협회, 생명보험협회 등과 같은 전문적인 보험업종협회를 조직하고 협회의 기능을 체계화 함.
- 보험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, 투자상품과 보험대리인에 대한 감독을

강화함.

- 업종별로 전문적인 보험사를 육성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, 국내 보험사의 지점설립 요건을 완화함.
- 기존의 보험보장기금을 생명보험보장기금과 재산보험보장기금으로 분리하고, 부실보험사의 퇴출을 유도함.
- 증권에 투자하는 보험상품은 증권감독위와 보험감독위의 감독을 모두 받아야 하며, 보험사는 관련상품을 판매하기 전 증권감독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.
- 보험대리인에 대해서는 자격증제도를 실행하여 무자격자의 영업행위를 엄금하며, 보험인과 대리인간의 계약관계를 명확히 함. 또한 겸업대리점보다는 전문대리점을 양성함. (***)